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2.7.4.)

7/7(목), 학생·학부모 7,035명이 응답한 대한민국 경쟁교육 고통의 실상을 발표합니다!

유기홍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 걱정)은 7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쟁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두 기관은 경쟁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그간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교육 고통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지표로 만들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경쟁교육 고통에 자살·자해·우울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무감각했습니다. 출산율 0.81명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은커녕 죽음과 우울을 떠올리며 산다면 대한민국은 썩크홀 속에 미래를 빠트린 사회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경쟁교육 고통의 실상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의 수면, 신체활동, 대화시간, 친구관계, 여가와 쉼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 순간이 어떻게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표로 나타낼 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창립 이후 14년 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경쟁교육과 사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심각한 각자도생의 사

회에서 공동체적 연대는 희미해져가고 소위 ‘내 새끼 하나 키우기도 벅찬’ 사회로 치닫는 현실에 경쟁교육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과 법률을 입안해 온 유기홍 의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 발표는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 경쟁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하지만 걸음을 떼는 일조차도 힘겹고 두 걸음, 세 걸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은 무수히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가능한 여정입니다. 이 길에 나선 유기홍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7월 7(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관 : 유기홍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 7. 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